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5(3): 29~43, 200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

최 윤 지 · 김 경 미 · 강 경 하 · 이 진 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 for Women-Farmer's Center

Choi, Yoon Ji · Gim, Gyung Mee · Kang, Kyeong Ha · Lee, Jin Young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Suw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the economic effect of Women-Farmer's Center. Since 200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s run Women-Farmer's Centers in which women-farmers can receive the care for their pre-schooling children, after-school learning service, and city-farm exchange, education, and counseling. In other words, Women Farmer's Center provides not only improvement of ease and quality of life of women-farmer's, but also spreading economic effect to community and country. By calculation based on business plan of 14 centers that run centers, total economic income effects are 2,784 million won, which consist of 1,265 million won for counseling, 146 million won for the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139 million won after-school learning, 1,020 million won for education, and 214 million won for city-farm exchange program. The Women-Farmer's Center should be managed reasonably with government support so that Women-Farmer's Center will become as a base camp for young women farmers to participate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nd increase its economic effect for the n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economic effect, Women-Farmers' Center, care of infants, after-school learning, education, counseling, city-farm exchange

Ⅰ. 서 론

21세기는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수준 향상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는 농업부문에서도 동일하며,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투하율이 52.5%로 나타나고 있는 등(농림부 2001) 여성농업인력의 노동력이 중요하게 자리잡았다. 이는 영농형태가 수도작 중심에서 시설원예, 특작 등으로 바뀌게 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적'차원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박태영 · 이성희 · 김윤경 2001) 지역사회가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중

접수일: 2004년 6월 8일 채택일: 2004년 7월 22일
Corresponding Author: Choi, Yoon Ji Tel: 82-31-299-0481
Fax: 82-31-299-0443 E-mail: choeyg@rda.go.kr

요한 단위로 강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NHS Community Care Act(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 보호법)를 제정하여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고 있고(Leathard 1994), 미국도 1971년부터 주·지역 단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려는 시범사업을 45개 지역에서 실행하였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에서도 지역복지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법안이 지역복지추진법이라 할 정도로 지역복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충을 상담하고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그리고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도·농교류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여성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고자 여성농업인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지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로부터 적극 보호·육성·지원되는 장소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지향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담보함으로써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직면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이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것" 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이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국 163개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과 국가에 끼치는 파급효과부터 냉철히 점검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에게 시간과 생활상의 여유와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과 국가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센터 운영이 국가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게 나누어 국민소득 증대효과와 여성농업인의 입지향상 등의 사회적 효과와 기타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야만 합리적이다. 과연 여성농업인 센터가 미칠 국가적 파급효과의 추정량은 얼마나 될까?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센터가 운영해온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후 학습지도 사업,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 고충상담, 도·농교류 등 제반 사업의 국가적 파급효과를 하나하나 냉철히 분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에 투입된 엄청난 국가예산의 효용성과 파급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과 전략개발의 방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센터의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운영만이 위기의 여성농업인을 새로운 농업·농촌의 주인으로 위치 정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와 여성농업인센터

세계적으로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단위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는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가까이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을 개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력기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도의 발전적 계승이며, 기존 경험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주 등 2002)

1) 여성농업인센터란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5항 및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규정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의 구축,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의 장』『배움의 장』『나눔의 장』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고충상담, 보육, 문화, 교양, 건강, 교육 등)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위치는 거리감, 교통문제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의 기초단위가 되는 면단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지역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한 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시범사업 수행이후 농림부 자체평가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효과를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등으로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업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생활의 기초인 면 단위에 설치되어 거리감, 교통문제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정부시책의 수혜자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농업인단체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최초로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경북대·농촌생활연구소 2003).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실태를 '03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 여성농업인센터 추진사업 관련 농촌지역 현황

1) 농촌의 영·유아 보육사업 실태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 내의 자녀교육기능이

Table 1. The management state of women farmer's center

Rigion		Counselig (person)	Infant care (person)	After learning school service (person)	Women farmer (day/person)		
					Education	Group activity	City-farm exchange
Gyeonggi-do	Yongin-gun	145	39	120	107(1,657)	3(105)	8(165)
	Yeoju-gun	223	20	45	41(829)	5(434)	5(223)
Gangwon-do	Yanggu-gun	199	12	31	31(937)	4(126)	2(102)
	Hoengseong-gun	203	6	41	62(964)	10(1,240)	8(355)
Chungcheongbuk-do	Yeongdong-gun	127	30	22	37(774)	8(304)	31(216)
	Chogju-si	37	7	15	2(180)	1(34)	2(125)
Chungcheongnam-do	Seocheon-gun	163	12	30	26(465)	29(1,701)	11(720)
	Hongseong-gun	88	9	43	42(807)	2(110)	-
Jeollabuk-do	Jinan-gun	84	16	13	4(54)	-	-
	Buan-gun	182	25	52	22(321)	5(251)	1(305)
Jeollanam-do	Jangseong-gun	89	23	22	105(1,917)	11(251)	-
	Naju-si	131	7	44	112(2,029)	-	-
Gyeongsangbuk-do	Yeongyang-gun	104	25	84	30(453)	4(212)	4(320)
	Andong-si	73	40	50	48(518)	-	-
Gyeongsangnam-do	Jinju-si	122	40	55	77(2,429)	1(600)	6(174)
	Geochang-gun	85	35	85	49(613)	16(613)	3(150)
Jeju-do	Bukjeju-gun	235	22	20	12(371)	1(35)	-
	Namjeju-gun	-	8	3	-	1(20)	-
Total		2,290	376	775	807(15,318)	101(6,036)	8,181(2,855)

약화되고 있다. 가정을 위주로 한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던 영·유아 보육은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만 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농촌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능 또한 공적 영역으로 전이 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은 도시의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고 농촌 보육기관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보육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보육기관들은 농업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월평균 보육료 유아 6~10만원, 영아 6~12만원 사이를 받고 있다. 이는 군에서 제시한 표준 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지성애 1999). 어떤 경우는 부모의 사정에 따라 무상이나 보다 적은 액수로 보육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표준 보육단가가 높다고 하였다(지성애 1999). 결국 재정부족은 교재, 교구 구입비를 낮추게 되고 보육종사자들의 수를 줄이고 시설 보수를 하지 못하여 농촌 영유아 보육 환경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농촌의 방과후 학습지도 실태

방과후 학습지도란 아동이 학교의 정규 공부 이외의 시간을 가정 밖에서 지내는 동안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적절한 활동과 환경을 제공하고 격려와 지원, 보호 감독하는 것이다(서영숙 1996). 영유아에 비하여 취학 아동들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상당히 성장해 있고, 일정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보육의 대상으로는 사회적 관심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나 이 시기의 아동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김경희 2001).

농촌의 경우 농번기에는 부부가 함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특성상 아동들을 제대로 돌보아주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학습능력의 저하와 함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습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에서 방과후 학습지도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습지도 사업은 농촌의 아동들이 학습과 정서적인 면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과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에게는 저소득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동시에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3) 농촌의 문화활동과 교양강좌의 실태

현재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호철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취미교실, 영농교육,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등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다음이 컴퓨터 교육, 농촌여성과제교육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영능력 제고에 가장 필수적인 영농일지 및 농업부기 교육, 농기계 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 교육 등에는 매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농업인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소득을 높이는 것과 지역사회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목표를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여성농업인 교육은 기관별, 수준별 차별성이 부족하고 교육대상도 제한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 여성들 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내연과 외연이 확충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 교육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수준별, 연령별 교육대상별로 사회적·실용성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촌지역에서의 상담실태

전국의 여성상담기관의 수는 Table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광역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 경기도이며, 다음으로 전북,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여성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군단위에서는 칠곡군과 울진군에만 여성상담기관이 있었고, 이외 시군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상담기관이 시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농촌에서의 여성상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장덕희 2001).

이것을 볼 때 무엇보다 지역에서 여성상담을 담당할 전문적인 여성상담기관의 설치 및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농촌의 여성농업인에게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상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공공상담기관의 상담자가 행정요원화 되어 버리는 현실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상담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극복해야할 문제는 발생한 농촌가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복지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 우선 상담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가족복지종합상담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담관련정보의 교환과 피상담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이 되도록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5) 도농교류의 의미와 실태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주로 그린투어리즘에 의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체험관광을 지칭하는'그린투어리즘'은 세부적으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루럴투어리즘(rural tourism)', 농가를 방문하여 체험하는 '애그리투어리즘(agri-tourism)',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답사하는'에코투어리즘(eco-tourism)'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또한 운영주체에 따라서'농가형 그린투어리즘'과'비농가형 그린투어리즘'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이러한 여러 유형 중에서'농가형 그린투어리즘'을 지칭하며, 특히 농촌의 신선한 자연환경과 전통 농경문화를 감상하고 농가의 생활과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을 지칭하는데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생협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도·농교류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도시의 생협으로 유기농산물중심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파급되는 유대관계를 통한 도·농교류 형태라 하겠다.

1990년대 들어서는 친환경위주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도시인의 수요가 늘고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산지의 등장으로 도·농교류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농협 및 지자체의 도·농교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편 '90년도 대비 '97년도 명목소득은 2.13배이나 실질소득은 1.24배로 '90년대 이후 명목 농가소득은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Table 2. The number of Consultation Office for wome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Consult Office	65	25	29	18	56	339	51	26	12

Sourc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1), 「Statistics of Health and Welfare」*

소득은 사실상 정체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소득향상 및 주5일 근무 등으로 가족단위 관광증가 및 퇴직노년층의 증가 등에 의하여 관광과 형태가 농촌전원관광형태로의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농교류는 매력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는 우리 사회의 필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면서 농촌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교류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교류활동이 양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이나 인구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에서도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을 통하여 농촌의 수익증대와 도시인과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연대감 확보 및 자녀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2002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로 전국의 18곳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12곳은 사업개시가 늦어져 9월부터 처음 시작되었거나(충북 청주) 중간에 운영자가 변경되는(제주 성산포)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은 18개 센터 중 2002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입수할 수 있었던 14개소를 집중분석 하였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후 학습지도사업, 문화활동과 교양강좌, 상담 및 도농교류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ys)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암시적 또는 명시적 목적에 기여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체계적 비교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평가방법을 총망라한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정해진 공중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관련된 대안들의 순편익(net benefits)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Sassone & Schaffer, 1978).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고려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고려중인 사업이 다수일 때는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의 평가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비용-편익비율 및 내부수익률법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여기서는 순현재가치법[1]을 사용한다. 각 사업으로부터 n년동안 수행되어 발생하는 편익의 흐름(Bo, B1,..., Bn)과 비용의 흐름(Co, C1,...,Cn)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VB = B_0 + \frac{B_1}{(1+r)} + \frac{B_2}{(1+r)^2} + \ldots + \frac{B_n}{(1+r)^n}$$

$$PVC = C_0 + \frac{C_1}{(1+r)} + \frac{C_2}{(1+r)^2} + \ldots + \frac{C_n}{(1+r)^n}$$

$$NPV = PVB - PVC = \sum_{i=0}^{n} \frac{B_i}{(1+r)^i} - \sum_{i=0}^{n} \frac{C_i}{(1+r)^i}$$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게 나누어 국민소득효과와 여성농업인의 입지 향상 등 사회적 효과와 기타 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센터의 국민소득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민소득파급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직접효과로서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가계의 소득증대효과이며, 둘째는 간접효과로서 유발효과라고도 하며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생산활동에의 참여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여러 사업에 주체적으로

1) 기간과 할인율에 대한 산정이 또 다른 가정을 유발함으로 여기에서는 가정을 더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비용과 편익만을 대상으로 하여(n=0) 순가치를 계산하였다.

참여하게 되어 나타나는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구조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발효과를 계수적으로 계측하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이 국가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Ⅳ.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 및 의미

1. 영유아 보육사업의 편익 추정

현재 농촌지역의 구체적인 보육비용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농촌지역의 경우 장지연 · 김지경(2001)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13차년도의 3개년도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패널표본구성원 중에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녀의 수는 평균적으로 1.7명이었고, 월 평균 보육비용은 530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자녀 1인당 월평균 보육비용은 환산하면 312천원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농촌지역의 보육비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000년 1월 기준으로 새로이 작성된 소비자 물가지수(통계청 2001)를 보면 2002년 10월의 유치원 납입금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122.1, 도 단위의 경우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로 나타났다. 이것을 농촌지역의 월평균비용으로 환산해보면

$$312(\text{천원})\times \frac{117.5}{122.1} = 300(\text{천원})$$

농촌지역의 월평균보육비용은 300천원으로 계산된다. 2002년 사업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8.8개월의 기간동안 약 15.8명의 영 · 유아에 대한 보육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육인원을 12개월에 대한 평균으로 환산하면 용인시의 경우 27. 3명으로 나타났다.

$$37(\text{명})\times \frac{9(\text{개월})}{12(\text{개월})} = 27.3(\text{명})$$

같은 방식으로 18개 여성농업인센터 개소 당 월 평균보육인원은 12.3명이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9.4개월의 기간동안 약 22.6명의 영 · 유아에 대한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으로 환산한 1 개소 당 월 평균보육인원은 17.8명에 비하면 5.5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여성농업인센터의 평균 월 1인당보육사업비용은 121,669천원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245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환산한 농촌지역의 영육아 1인당 월평균보육비용보다 55천원의 절감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영육아보육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농가에서는 영육아 1인의 보육에 지불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실질적으로 55천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당 평균적으로 보육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증대효과는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도 8,118천원이다.

$$12.3(\text{명})\times 12(\text{개월})\times 55(\text{천원}) = 8,118(\text{천원})$$

이를 영육아보육사업을 실시하는 18개 여성농업인센터 전체적으로는 보육사업의 결과 연간 146,124천원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8,118(\text{천원})\times 18(\text{개소}) = 146,124(\text{천원})$$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행정단위가 시군이지만, 영육아보육의 특성상 인근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한 읍면동단위에서 영 · 유아와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 예정인 영 · 유아와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사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한 읍면동단위의 0~4세의 영육아수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2,015명으로 평균 112명이었다. 이중에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되는 영 · 유아의 비율은 11퍼센트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2000년 현재 전국의 0~4세 영·유아는 106,615명(통계청 2000)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에서 11퍼센트의 영·유아가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보육을 받게 된다면 보육사업을 통하여 연간 7,740,031천원의 농가 보육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실질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06,612(명)×11% ×12(개월)×55(천원)=7,740,031(천원)

2. 방과후 학습지도활동의 사회적 편익 추정

통계청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통계청 2001). 10가구당 7가구 이상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1 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1천원, 한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한달 평균 371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패널 2000년도 3차 조사 데이터 중 가구용과 개인공통 자료에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한 이승신(2001)의 연구에서는 자녀연령별로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217.1천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학생 174.6천원, 초등학교 고학년 137.9천원, 취학 전 129.3천원, 초등학교 저학년 118.3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이를 농촌지역의 방과후 학습비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등학생 또한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학생 이하 네 집단의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 140천원을 기준으로 환산하고자 한다. 2000년 1월 기준으로 새로이 작성된 소비자 물가지수를(통계청 2001) 보면 2002년 10월의 보습학원비용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113.1, 도 단위의 경우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나타났다. 이것을 농촌지역의 월평균비용으로 환산해보면

$$140(\text{천원})\times \frac{104.1}{113.1} = 129(\text{천원})$$

농촌지역의 1인당 월평균 방과후 학습비용은 129천원으로 계산된다. 2002년도에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방과후 학습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8.7개월의 기간동안 약 27.1명의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2개월의 사업기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26.1(\text{명})\times \frac{10(\text{개월})}{12(\text{개월})} = 21.8(\text{명})$$

이를 12개월로 평균을 다시 구해보면 용인시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21.8명이었다. 이렇게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해보면 월 평균 21.4명의 아동이 방과후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9.5개월의 기간동안 약 47.7명의 아동에 대하여 방과후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월 평균으로 환산한 여성농업인센터 개소 당 평균보육인원인 38.6명에 비하면 17.2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여성농업인센터의 방과후 지도사업의 경우 적게는 7,017천원에서 많게는 66,368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 21,870천원을 방과후 학습지도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월 평균사업비용은 1,882천원이었으며, 1인당 월 평균 방과후 학습지도비용은 3.4211천원의 분포로 매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99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는 차량비와 운전원의 인건비를 영·유아 보육사업과 동등하게 배분하여 계상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환산한 농촌지역의 방과후 학습비용과 비교해보면 1인당 30천원의 월 평균 방과후 학습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당당 평균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증대효과는 학습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도 7,704천원이다.

21.4(명)×12(개월)×30(천원)=7,704(천원)

이를 방과후 학습지도사업을 실시하는 18개 여성농업인센터 전체적으로는 학습지도사업의 결과 연간 138,672천원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7,704(천원)×18(개소)=138,672(천원)

물론 여기에는 전문 지도교사의 존재 여부와 능력 그리고 시설 등 제반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미흡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하는 전인적 학습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크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일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한 읍면동단위에서 아동수와 비교를 통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6.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5~14세 아동의 수는 352,16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에서 6.5퍼센트의 아동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받게 된다면 연간 8,240,544천원의 농가 아동의 사교육비의 절감을 통한 실질 소득의 증가를 방과후 학습지도사업을 통하여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52,160(명)×6.5%×12(개월)×30(천원)=8,240,544(천원)

3. 문화활동과 교양강좌 활동의 사회적 편익 추정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활동과 교양강좌는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서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 Price(1972)에 따르면 자아실현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이고 근대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과 교양강좌의 실시는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를 도모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미(2000)는 경기도 여주군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비율이 가장 그 높았음을 밝혔다.

농림부의 200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인교육에 있어서 그 대상을 78천명으로 하여 2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를 교육대상 농업인 1인당 교육예산으로 환산하면 농업인 1인당 평균 36천원의 교육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800,000(천원)÷78(천명)=36(천원)

이를 교육대상 농업인 1인당 교육예산으로 환산하면 2002년도 사업을 실시한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교육의 대상은 2213,744명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1,889명의 대상인원을 교육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의 사업비용은 작게는 1,663천원에서 많게는 21,309천원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 교육 비용은 8,332천원이었다. 교육대상자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은 6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서 전제조건으로서 교육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나 교육을 통하여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자아를 실현하게 되고 자신의 개인적 소양을 함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평생교육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란 점에서 교육의 효과가 같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림부의 농업인교육의 1인당 예산과 비교해보면 대상인원 1인당 평균 교육예산비용이 20천원의 절감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36(천원)-6(천원)=30(천원)

이는 각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에서 평균적으로 56,670천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계산되었다.

1,889(명)×30(천원)=56,670(천원)

18개의 여성농업인센터 교육사업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1,020,060천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6,670(천원)×18(개소)=1,020,060(천원)

2000년 현재 여성농업센터가 소재한 읍면동단위의 여성농업인의 총수는 22,757명이었는데(통계청 2000),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의 전체 여성농업인이 한번 이상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통계청 2000)에 따르면 전국의 여성농업취업자수는 1,420천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전국 규모에서 교육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42,600,185천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여성농업인센터의 문화활동 교양강좌를 통해서 발생할 것이다.

1,420,006(명)×30(천원)=42,600,180(천원)

4. 고충상담의 사회적 편익추정

지역에서 여성상담을 담당할 전문적인 여성상담기관의 설치 및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농촌의 여성농업인에게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상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공공상담기관의 상담자가 행정요원화 되어 버리는 현실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상담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극복해야할 문제는 발생한 농촌가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복지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 우선 상담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가족복지종합상담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담관련정보의 교환과 피상담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이 되도록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농업인 상담의 효과가 가족해체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하여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게도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족해체 방지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담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승권 등(2001)의 연구에서는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조사」의 표본을 이용하여 가족해체의 발생원인과 그 생활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표본 조사가구 12,324가구 중에서 해체가구의 수는 895가구로 7.3퍼센트에 해당되었고, 그 중에서 조사된 604가구 중에서 40퍼센트의 가구가 이혼·별거·가출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면에서는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이 1,710천원이고 해체가구의 경우 870천원으로 해체가구가 일반가구의 50.9퍼센트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센터의 고충상담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가족의 해체비용을 추산하였다. 김승권 외의 연구에 따라 「농가경제통계」(통계청 2001)에 제시된 농가의 2000년도 연 평균소득인 23,072천원의 49.1퍼센트의 해당하는 11,328천원만큼이 가족해체에 따른 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23,072(천원)×49.1(%)=11,328(천원)

2002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비용은 6,84317,731천원의 상담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용 규모는 여성농업인센터 평균 11,915천원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우선 농촌 가족의 잠재해체율은 김승권 등(2001)의 연구결과에 따라 가족해체 중에서 이혼·가출 등에 따른 가족해체율인 2.9퍼센트로 가정한다.

7.3(%)×0.4(%)=2.9(%)

2002년 여성농업인센터의 고충상담 평균실적인 240명을 이용하여, 그 중에서 2.9퍼센트에 해당하는 7.0명의 여성농업인이 가족해체의 위기에서 처해 있었으나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을 통하여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각 여성농업인센터별로는 1개소당 평균적으로 7.0명의 가족해체를 방지함으로써 70,284천원의 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게 된 것으로 계측된다.

7.0(명)×11,328(천원)-9,012(천원)=70,284(천원)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2002년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총 125.3 여성농업인(가구)이 가족해체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서 손실위험이 있었던 1,265,112천원의 소득을 보존하게 된 효과가 있다.

18(개소)×70,284(천원)=1,265,112(천원)

여성농업인센터에 상담을 하는 인원을 2001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지역 전체 1세대 이상의 농가인 24,112가구(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중에서 17.9퍼센트의 가구의 여성농업인이 최소한 한번 이상 상담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전체 농가 1,383,468호(통계청 2000) 중에서 1인가구나 비혈연가구 181,603호를 제외한 1,201,865호의 17.9퍼센트인 215,134호의 여성농업인들이 읍면단위에서 설립된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이 중에서 2.9퍼센트에 해당하는 농가의 해체를 방지하게 된다면 총 국민소득효과는 37,969,552천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215,134(명)×2.9(%)×11,328(천원)-9,012(원)×
3,629(읍면동)=37,969,552(천원)

5. 도농 교류사업의 사회적 편익추정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생협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도·농교류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도시의 생협으로 유기농산물중심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파급되는 유대관계를 통한 도·농교류 형태라 하겠다.

1990년대 들어서는 친환경위주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도시인의 수요가 늘고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산지의 등장으로 도·농교류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현재 도·농교류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으며, 사례별로 조사된 경우가 있다. 오순환(2002)의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민속놀이인'탁장사'놀이를 소재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도·농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양양군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더불어 주민들의 관광사업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결과 이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이 양양군에서 지출한 1인당 비용은 평균적으로 51,652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행사의 효과는 여름철 피서객에 의한 효과 보다 약 25배 이상의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선군의 "아우라지 겨울이야기" 행사에서 쓰인 것(42,150원)보다 22.5퍼센트 많은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에 참여한 순수관광객의 수는 111명이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출발한 가족단위의 관광객이었다. 이로 양양군의 지역 경제적 효과는 모두 5,733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도·농교류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양양군 정선군의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을 평균하여 47천원을 도농교류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귀속되는 도시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002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도농교류 사업의 실적을 보면 연인원 81,105명의 도시인들을 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약 321명의 도시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농교류를 위한 비용의 규모는 총 41,660천원으로 도시관광객 1인당 평균 10천원의 예산을 경비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계산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과 비교해보면 도시 관광객 1인당 37천원의 소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된다. 각 여성농업인센터에서 11,877천원의 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321(명)×37(천원)=11,877(천원)

전체 18개 여성농업인센터로 보면 도·농교류의 결과 연간 213,786천원의 소득증대효과를 시군 지역경제에 가져온다고 하겠다.

18(개소)×11,877(천원)=213,786(천원)

오순환(2002)의 연구에 따라 농가 귀속분의 비율이 53.8퍼센트라 하면 지역의 농가들에 115,017천원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3,786(천원)×53.8(%)=115,017(천원)

실제로는 모든 지역의 농가들이 도·농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농가 중에서 5퍼센트의 농가가 도·농교류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면,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인접 읍면단위의 평균 농가1,490호의 5퍼센트인 75호가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한 읍면동의 평균농가호수로 농외소득을 나누면 농가 호당 1.533천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규모로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하여 도·농교류사업이 확대된다면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효과는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2000년 현재 전국 농가호수는 1,383,468호(통계청 2000)이다. 이들 농가 전체중 5%가 도·농교류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도시인들이 전국적으로 도·농교류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소득증대효과는 연간 106,042,288천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6. 여성농업인센터의 사회적편익 추정 효과와 의미

21세기의 우리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을 확대·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사회의 농업에 대한 요구도 자급적 국민식량 확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보전이라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역할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여성농업인은 농촌을 지키고 농업생산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민족농업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미래의 농업 발전의 핵심은 농업구조의 개혁과 농업주체 인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구조 개혁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농업생산 담당자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은 이미 확보된 농업주체인력이다. 더욱이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함께 지역사회 단위로 각종 사업이 활성화하면 여성농업인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역생산과 지역생활의 주인으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가사와 자녀교육 문제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농번기에는 아동보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1년에 4개소 시범운영에 이어 2002년 전국 18개소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성농업인이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활동 실시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청소년 체험학습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하여 일상적으로는 가족상담, 자녀교육 등 여성농업인이 농업 농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할 계획이다.

앞에서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의 국가적 파급효과를 계수적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2002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해 본 결과, 영·유아 보육사업 146,124천원, 방과후 학습지도사업 138,672천원,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사업 1,020,060천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사업 1,265,112천원 및 도·농교류사업 213,786천원으로 총 2,784,300천원의 국민소득 증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자녀교육 등 힘든 농촌생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정착을 도우며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와 함께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으로 인한 국가적인 파급효과는 18개

Table 3. The economic effect of women farmer's center (unit : cheonwon)

	The economic effect
Nursing care	146,124
After learning school	138,672
Education	1,020,060
Counselling	1,265,112
Intrachange of rural & urban	213,786
Total	2,784,300

소에 대한 사업비용 1,764,887천원을 훨씬 초과하여 이 비용을 공제하고도 1,019,413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래에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어 사업을 펼칠 경우에 국가적 파급효과는 현재 파급효과의 약 72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으로 현재 농림부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163개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된다면 그 국가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새로운 농업·농촌의 주인으로서 그 위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국가와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V. 결 론

2001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은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 없이는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은 지금까지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삶의 질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들어 여성농업인이 농업 및 농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던 농림부는 2001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개인이나 단체가 이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전국 4곳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국 18곳으로 시설을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정책대안이 부재한 실정이며 인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여성농업인의 의식개혁과 경영능력 배양을 통하여 신기술·신지식농업에 대응능력 배양, 그를 통한 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발달 등의 후방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국가경제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편익을 직접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이 여성농업인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았다. 2002년 18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해 본 결과, 영유아 보육사업 146,124천원, 방과후 학습지도사업 138,672천원,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사업 1,020,060천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사업 1,265,112천원 및 도·농교류사업 213,786천원으로 총 2,784,300천원의 국민소득 증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들에 대한 운영비지출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센터마다 운영비를 각 사업별로 나누는 방법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다. 각각의 사업에 쓰인 경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이 운영비의 계산방법에 따라 추정된 편익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를 보일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자녀교육 등 힘든 농촌생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정착을 도우며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와 함께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으로 인한 국가적인 파급효과는 18개소에 대한 사업비용 1,764,887천원을 훨씬 초과하여 이 비용을 공제하고도 1,019,413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래에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어 사업을 펼칠 경우에 국가적 파급효과는 현재 파급효과의 약 72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의 과제로서 보육사업을 필수사업으로 규정할 때 나타나는 폐단은 다음과 같다. 방과후 학습지도와 여성농민 상담 및 교육 문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기존의 보육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센터를 원천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림부 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센터 내 어린이집 원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 공무원들은 이를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것이"이중 지원이 아니다"는 근거를 마련하든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농촌보육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이중지원이더라도 농촌보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센터 자립의 과제로서 현재 농림부의 입장은 형평성을 들어 자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자립'의 문제를 센터 운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상은 분명히 그릇된 것이다. 센터의 주인은 이용자들이며, 이 사업은 국가의 농업정책 속에서 입안된 것이다. 국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일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돈까지 만들어가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현재 상태에서 센터 자립을 예기한다면 어느 운영자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센터 운영매뉴얼의 수립으로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침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센터심사지침』은 "기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센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인정한다. 단, 사업운영심사에 대한 지침을 세워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기되는 선정의 문제는 농림부가 사전에 이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탈락시킬 수 있는 충실한 『센터운영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은 새 지침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부적합한 운영자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보다 완벽한 운영 매뉴얼이 센터 운영자들에게 제시되고 승인 받아야 할 시점이다.

넷째, 센터 대표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로서 현재 센터 대표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예산관리 및 행정업무, 상담관련업무, 조직관리 및 업무분장 및 관리, 부정기사업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는 지역에서 센터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외관계 및 협력사업, 센터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 활동과 센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잡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센터는 급여 지원 종사자 보다 더 많은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대표는 급여를 받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종사자 기준 센터대표(상담원),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의 4인 기준에서 센터대표 자리를 두고 그에 대한 급여지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부정기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보면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직접 수혜자가 되는 교육, 문화사업, 도농교류 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현재 예산 구조로는 부정기사업을 두세 가지 정도 할까 말까한 센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문화 활동의 필요성이 큰데, 그나마 부정기사업 예산의 축소로 인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것은 센터 사업의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기 사업비를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수혜자가 되는 교육, 문화사업, 도농교류 사업 등을 열어가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2001). 방과후 아동지도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3), 77-88.

김승권 · 이태진 · 김유경 · 송수진(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림부(2001). 2000년도 농림업주요통계.

박태영 · 이성희 · 김윤경(200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hakhoe/bogji/003.htm.

서영숙 · 김경혜(1996). 보육학개론, 양서원.

송연경(2002). 지역단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순환(2002). 도 · 농 녹색교류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방안. 현대농업기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정미(2000). 여성의 평생교육에 관한 의식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철 · 최수영 · 박재홍(200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 37-62.
이현주 · 강혜규 · 이윤경(2000). 지역단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장지연 · 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지성애(1999). 농촌보육사업의 실태와 과제. 한국영유아학 18(3), 17-28.
최윤지 · 조현숙 · 김경미 · 조희금 · 김주숙(200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략 연구 ; 여성농업인 센터를 중심으로. 2002농촌생활과학연구, 247-272.
통계청(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2001). 농가경제통계.
통계청(2001). 사회통계조사결과(교육부문).
통계청(2001).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01).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is.nso.go.kr
Leathard. A.(1994). "Inter-professional developments in Britain: An Overview". A. Leathard(ed). *Going Inter-Propessional: Working together for health and welfare*, Routledge, London.
Sassone PG, Schaffer WA(1978). Cost-Benefit Analysis: Handbook, Academic Press.